

서울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양돈반”



취재 :
추용진 기자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양돈반 3기생들의
모습

수원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울대학교 대형 강의동에서 열세명의 양돈인들이 매주 1번씩 모여 배움의 열기를 발산하고 있다.

이 모임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 정창주)에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개설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지키겠다는 뜻있는 농민후계자들을 중심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서울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국립 농학계대학에서는 처음으로 1993년에 1기생 50명을 배출하고, 1994년에는 100명의 2기생들이 양돈, 한우, 낙농, 양계, 과수, 채소, 화훼, 수도작의 8개 반에서 수학하여 1995년 2월에 수료하였으며 지금은 126명의 3기생들이 각 8개반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정창주 학장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서 전문적 첨단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시킴으로써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수업과정에서 교수와의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하여 얻어진 사제지간의 친화감과 공감대의 형성으로 종래 농촌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젊고 유능한 농민지도자를 육성하여 우리 농촌, 농업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대학의 농촌교육 참여목적을 설명했다.

이 과정은 경기도내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학력, 연령의 제한이 없이 전업농가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시·군 농촌지도소장에게서 추천을 받아 시·군에 일정 양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1년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8시간 동안 전공 및 교양 등에 관하여 학

습하며 강사진은 농업교육과 김성수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7명의 전공교수를 주축으로 하고 정부 관료 및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다. 등록금은 30% 자비와 70% 국가보조로 이뤄지며 1학기에 375,000원을 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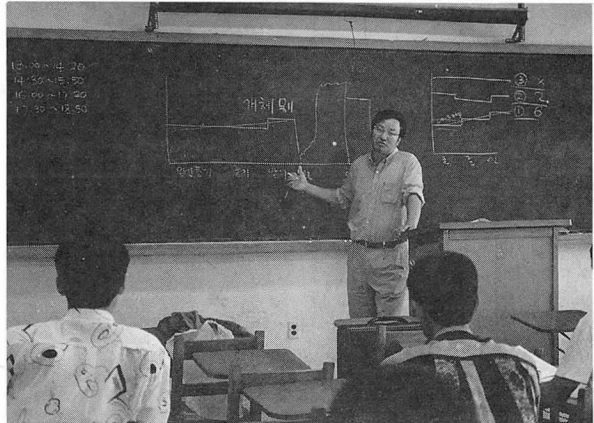
양돈반은 17명의 정원중에서 현재 13명이 강의 듣고 있으며 이들 양돈인들은 지역사회에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양돈후계자들이다. 또한 양돈반의 수강생들은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20년전부터 양돈장을 경영해왔고 사육두수는 모돈 50~130두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전업규모 형태의 양돈인들이었다.

본 기자가 찾아간 날은 2학기 개강후 두번째 시간으로 이날 수업은 주식회사 제일종축의 농장장으로 있는 김성훈 박사가 돼지의 사양관리와 종돈의 사양관리에 대해 강의를하고 있었다. 김성훈농장장은 강의에 앞서 “양돈경력이 많으신 양돈가분들이므로 돼지 사양관리에 대해 토의식으로 강의를 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형태로 강의를 하겠다”고 운을 뗀 뒤 “다른 교육과는 달리 돼지사양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장에 맞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다”며 현장과 직결된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성훈 농장장은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서 변하고 있는 돼지 사양관리기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실험등을 통해 확증된 신기술 및 사양기법들을 자기 농장에 도입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머리속의 지식만이 아닌 현장에 응용하여 세계속의 양돈농가로 발돋움하기를 당부했다.

이 날의 수강생들은 쉬는 시간 틈틈히 각 농장들의 시설 보완, 현재 발생되고 있는 질병 등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강의시간에 많은 질문과 수업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로 그 배움의 열기를 가름케 하였다.

수업시간의 구성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8시 50분까지의 80분 교육, 5교시로 되어 있고



돼지의 사양관리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성훈 농장장

김성수 주임교수, 대가축 전공 임경순 교수, 중소가축전공 한재용 교수, 과수전공 고광출 교수, 원예전공 이병일 교수, 수도작전공 이변우 교수 각각 전공별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을 맡고 있다.

금년도 2학기에 양돈반이 배우게 될 교과내용은 농업 경영자와 농촌지도자 육성 방안, 한국농업의 특성과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와 대응, 농민단체의 직판장 운영 등의 공통교과내용 이외에 돼지·종돈의 사양관리(김성훈), 영양과 사료(한인규), 양돈 및 양계 유통 경영(유철호), 돼지의 심사 및 품종선택(박영일), 양돈 및 양계산업의 정책(김달중), 돼지의 질병예방과 치료(채찬희), 컴퓨터를 이용한 농가경영(추태호), 양돈의 경영분석(윤희진), 양돈의 경영 진단(윤희진), 최근 국내외 양돈산업의 방향(박영일) 등이고 마지막 종합평가를 끝으로 학사 일정을 마치게 된다. 또한 2학기 동안에는 졸업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 및 평가를 받아야 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내년 2월 수료식까지 양돈반의 제3기 과정 수강생들은 영양, 사료, 질병예방, 농가 경영분석 및 진단 등을 듣고 이 과정이 끝난 후에는 수료생 모두가 한발 앞서서 경기지역의 양돈산업을 선도하는 양돈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